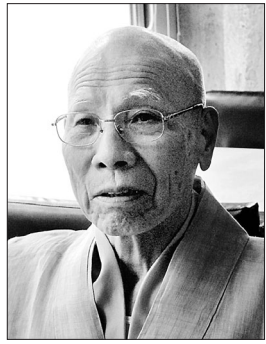


# “나는 결백... 필요하면 재심 청구할 것”

원두 스님, 기자회견서... “의현 스님 판결 잘된 일”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벌어진 원두 스님(사진)이 자신의 결백을 다시 주장했다. 최근 재심호계원의 의현 스님 판결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징계 사유가 명확치 않았고  
제소 요지 누락... 중범 위반

원두 스님은 6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4년 초심호계위원회의 징계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고 징계사유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1994년 당시 초심호계원이 자신을 승니법 4, 6, 10호를 적용해 징계했고, ‘화합 저해’를 사유로 적시했다”면서 “그러나 ‘화합 저해’는 처벌 사유는 고사하고 가벼운 징계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인 ‘부당한 언사’ 역시 가벼운 징계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처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원두 스님은 “호법부 등원 통보를 받았지만 두 차례나 불법 납치를 당한 상황여서 출석하지 못했다. 안전한 장소에서 답변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총무원법 18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두요구서에는 제소 요지가 누락됐고, 제소 이유를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답변이 오지 않아 변론권이 박탈된 채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에는 의현 스님 판결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원두 스님은 “재심호계원이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으로 판결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종단적으로나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재심 청구의 의향에 대해서는 “(의현 스님의)판결을 보며 나 역시 재심과 특별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다만 지도층의 의향 변화와 종단의 정서가 무리여야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심호계원 판결 후 의현 스님과 만났느냐는 질문에 “법규위원회 심판청구 이후 연락하지 않는다”고 간략하게 답했다.

원두 스님은 그동안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초심호계원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실제 스님은 2012년 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의현 스님은 2013년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스님의 특별재심 요청은 각 하했으며, 의현 스님의 심판청구는 자진 철회로 종료됐다. 신성민 기자

# 100인 대중공사로 간 ‘의현 스님 재심 논란’

추진위 30일 회의서 의제 변경 결의... 오는 7월 29일 대중공사

조계종의 ‘뜨거운 감자’가 된 재심호계원의 의현 스님 감형 판결이 100인 대중공사에 다뤄진다.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도법)는 6월 30일 6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29일 열리는 제5차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의제를 ‘의현스님 재심 논란’으로 변경했다.

그간 추진위는 메르스 여파로 대중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5차와 6차 의제를 병합해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8일 재심호계원이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 감형 판결한 데 대해 종단 안팎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종헌 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고, 대중공사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의제를 변경해 종단의 현안을 다루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 미래로 가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중공사 참가자들이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일부 정해진 의제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 사안을 다루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중공사에서 재심호계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구속력은 없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따라서 추진위 내부에서는 의현 스님의 공권정지 판결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통해 과거사를 재조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 해인사가 다시 시끄럽다

해인총림 해인사가 다시 시끄럽다. 방장 원각 스님이 차기 주지로 H스님을 추천한다는 루머가 돌았고, 여연·원학 스님을 중심으로 H스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연 스님은 6월 26일 방장 사서실장 능혜 스님에게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 담긴 ‘촉구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해인사 사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금품 살포 등으로 문제가 된 특정 스님이 주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연 스님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세간에는 주지 추천을 두고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해 7년을 노력했다. 이번 문제 제기 역시 해인사 정상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촉구 서한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여연 스님은 “주지 자리를 놓고 정탈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 사실이 있는 스님을 주지로 추천하는 것을 다시 재고해줄 것을 방장 스님에게 간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주지 H 스님 내정설... 반대 움직임 격화  
방장 스님 측 “모두 확인되지 않는 루머일 뿐”  
여연 스님 “몽니 아닌 정상화 위한 문제 제기”  
원학 스님 “추천 확인되면 반대 입장 밝힐 것”

이어 “해인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철 스님 이외에도 위로는 용성 스님과 일타·자운 스님 등 수행, 포교, 율학 등 사상적인 부분부터 재정 분야의 재가자 참여, 수의 사업을 통한 승가와 재가 종무원에 대한 복지 등이 종합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접수하고 이끌어 나갈 인물이 주지가 돼야 한다. 그럴 수 있다면 누가 와도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유가 있다. 원각 스님을 방장으로 모신 이유도 문중 화합의 추진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작 모시고 나니 부정적 인물을 추천하고 연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어른(방장 스님)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하면서 “특정 스님의 주지 추천이 확인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겠다. 또한 현 방장추대위원회 측 한 명으로서 본인도 참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장 원각 스님 측은 모두가 확인되지 않는 루머라고 일축했다. 방장 예정실장 능혜 스님은 “세간에서 H 스님을 주지 후보로 추천했다고 하는 데 이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다. 여연 스님이 보냈다는 서한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품 수수에 대한 부분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장 추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임대·운영비로 심시일반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다 둘러보았다. 영수증도 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메르스와의 전쟁, 이겨내 달라”

종교지도자들 6월 29일  
국립의료원 격려 방문

자승 스님, 김희중 주교 등 참석  
의료진에 격려금 1천만 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앞 줄 왼쪽서 두 번째)을 비롯한 종지협 대표단이 인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메르스 대처 현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은 일선의 의료진이다.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불교, 가톨릭 등 한국 주요 종교지도자들이 나섰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 자승, 이하 종지협)는 6월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가톨릭 주교회의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유교의 정한호 성균관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발열 체크 등 검사를 진행한 후 의료원장실로 이동해 현황을 전해 듣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격려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의료원 방문

으로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을까 고민했다”면서 “의료진들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드린다.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하루 빨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종교계도 메르스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꼭 이겨내길 바란다. 의료진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주교는 “의료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 정성을 다해서 하시니 곧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전화위복의 좋은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귀한 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종교계 어른들이 방문해 의료진이 더욱 힘이 난다”면서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난국을 극복하기 어렵다. 종교인들이 앞장서주신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 “창원 軍불자의 안식처 안국사 폐사 중단하라”

군법당 창원 안국사, 일방적 철거

육군 제39사단 군법당 창원 안국사가 부대 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거·폐사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두고 창원 지역 불교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안국사 존치위원회(총괄부장 성공, 이하 존치위)는 6월 26일 “함안으로 부대를 이전 과정에서 종단과 일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법당 철거를 추진했다”며 “창원시도 기부채납 당시의 조건을 이행하라는 통고사와 조계종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당 철거와 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치위에 따르면 안국사는 안심정사가 화재로 전소되자 불교계가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사찰이다. 건립 당시 부대 이전 등으로 인해 법당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종단으로 불하한다는 조건을 군 당국에서 제시한 바 있다.

1990년 법당건립비용으로 5억 2천7백여만 원이 투입됐고, 이는 불자들의 시주와 화계를 통해 이뤄졌다. 이후에도 조계종은 2005년 약 3천만 원을 직접 지원해 교육관을 신축했으며, 이를 기부채납했다.

조계종 안국사존치위원회(총괄부장 성공)는 6월 2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와 태평건설이 종단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안국사와 안국사존치위원회는 안국사 존치를 염원하는 법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뜻을 관철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하성미 기자

# “대처 없을 시 실명 공개”

참여불교계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중규)는 6월 30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종단 기능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지난 6월 13일 조계종 재심호계원서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 감형 판결을 내린 것 관련 “복권 문제를 논하기 전 의현 스님이 보유한 불교 문화재를 환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2005년 의현 스님이 문화재 은닉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압수품을 수거했으나 ‘사찰에서 쫓겨나면서 옮긴 것, 전래 승려의 방식으로 보관한 것’이라는 의현 스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과 함께 압수품 대부분을 의현 스님이 환수해갔다”며 “조계종단은 의현 스님 복권을 거론하기 전 최소한 자신들의 문화재라도 환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 불기 2558(2015)년 주지의무 연수교육 공고

귀의삼보 하옵고, 종단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해 정진하시는 스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종단 창종주 서경보 존자 생존시에는 매년 주지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오던 중 종단의 두 번에 걸친 내용으로 중단되었으나 종도들의 애증심으로 종단이 안정됨에 따라 다시 주지연수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스님의 자질을 향상하고 종도간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적극 동참 하시어 종단의 발전과 종도간의 화합에 협조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9 (2015)년 7월 27일(월) ~ 28일(화) (1박 2일)
- 장 소 : 한국문화연구소(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065 불교문화원)
- 참석대상 : 주지스님, 주지법사
- 요청사항 :
  - ① 참가신청 : 7월 15일 수요일까지 마감
  - ② 대회경비 : 100,000원
  - ③ 입금계좌 : 농협 (355-0001-1643-13) 예금주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 ④ 신청방법 : 각지역 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통보
  - ⑤ 준 비 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 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1층 총무원  
전화 02)991-8175,8904 / 팩스 02)991-8176

※ 주지의무연수교육 불참 시 향후 비구계, 법계고시, 종단직책등 불이익이 발생할수있습니다.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